

새만금청, 현대차그룹 9조 프로젝트 전담 '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' 출범

- '로봇추진단'을 중심으로 로봇·AI·수소융합 글로벌 미래산업 허브 구축

- 새만금개발청(청장 김의겸)은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투자한 9조 원의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'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(T/F)'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고 3월 11일 밝혔다.
 - 추진본부(T/F)는 3월 11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'새만금·전북 대혁신 TF' 키오프 회의와 연계하여, 새만금에 추진되는 로봇 제조, 인공지능(AI)데이터센터, 인공지능(AI)수소시티 등 대규모 미래산업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의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되었다.
- '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(T/F)'는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본부장으로, 기획조정관, 개발전략국장, 개발사업국장을 부분부장으로 한 총 9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로 투자 지원과 정책 협력을 추진한다.
 - 분과는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로봇수소추진단(총괄분과)을 중심으로 ▲재정분과 ▲계획지원분과 ▲제도개선분과 ▲입지지원분과 ▲기반시설분과 ▲에너지분과 ▲AI데이터센터분과 ▲AI수소시티분과로 구성된다.
 - 이 가운데 로봇수소추진단은 추진본부(T/F)의 총괄 부서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으로 신설되어, 기업 투자 지원과 정책 조정의 원스톱 소통창구로서 '투자 음부즈만' 역할을 수행한다.

-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추진본부(T/F) 운영을 통해 기업 투자 지원과 산업 기반 조성, 관계기관 협력 강화, 로봇·AI·수소산업이 융합된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.
 - 특히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환경을 활용해 로봇 제조, AI데이터센터와 수소에너지 산업이 결합된 미래형 산업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.
 - 또한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자체 협력을 강화하여 정부의 인공지능(AI) 대전환(AX),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, 케이 인공지능(K-AI)시티 실현 등의 국정과제가 새만금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.
-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"현대차그룹의 9조 원 투자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업 투자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로봇·AI·수소 중심으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출발점"이라면서, "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(T/F) 운영과 로봇수소추진단 신설을 통해 기업 투자 지원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새만금을 글로벌 AI·수소 미래산업 도시로 육성하겠다.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(공동)	개발사업국 국제도시과	책임자	과 장	천용희 (063-733-1160)
		담당자	사무관	이나연 (063-733-1171)
	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연우 (063-733-1140)
		담당자	사무관	김성민 (063-733-1145)
			주무관	황수민 (063-733-1143)